

간단치 않은 삶의 궤적을 그렸기에 진로를 꿈꾸는 고등학생, 꿈을 이루고픈 대학생, 지금 사시나 CPA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 그리고 불철주야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이나 수기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것을 포괄하다 보니 글이 생각보다 길어졌고, CPA를 위주로 하면서도 학생때부터 지금까지의 수능과 사시경험도 시험공부라는 공통점 위주로 기재하다보니 그런 점에 대하여 장황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줄고를 읽어주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석을 한 것도, 최연소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 남자로서, 다른 훌륭하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공부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송구스럽게 느껴지지만, 미력이나마 저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쁨이 한량 없기에, 구체적인 수험방안보다는 고시와 공부에 대한 전반적인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 특히 중간에 CPA로 진로를 바꾸거나 전직을 꿈꾸는 직장인들을 위해 - 조심스럽게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저를 이상화하거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합격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다소 길어질지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치부까지도 숨김없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런 과정을 이겨내는 것이 고시공부의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되, 문장의 간소화를 위하여 외람되지만 평어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시절

지금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지금 내리고 있는 비의 무게는 어쩌면 내 인생의 삶보다 더 가벼운 것 같다. 합격소식을 듣고, 의외로 담담한 나에게 지인은 기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 물음에 아무 말 없이 웃었던 것은, 왜였을까

학생때 나는 아는 사람들은 어디가서나 책을 찾아서 읽는 아이로 기억을 했었다. 어렸을 때 부터 책을 너무 좋아했고, 고전부터 성인서적까지 보이는 대로 글을 읽었다. 당시 용돈만 받으면 책을 사는 터라, 나중에는 집에 책을 쌓아둘 때가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 내가 비교적 단기간에 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의 무수한 독서경험에서 오는 이해력과 사고력, 독해력 때문인 것 같다. 어떤 시험이든 텍스트를 이해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글로 서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는 독서를 통해서만 길러진다고 본다.

중학교 내내 평범한 학생이던 내게, 3학년 때 처음으로 1등을 해보고 그때의 경험은 그 이후 내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 주었다. 학생의 성적에 대한 대응은 루카스식 합리적 기대보다는, 적응적 기대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좋은 성적이든, 나쁜 성적이든 계속 받다보면 거기에 익숙해 지는 것 같다.

고등학교 수학 첫 시험에서 50점을 받았다. 점수에 절망하고, 수학의 정석이 이해가 안 돼 몇 번이고 덮어버리는 과정을 거쳐, 도저히 이과 적성에 안 맞는 다는 것을 발견하고 문과로 갔다. 때마침 입시체제가 수능과 본고사가 도입되었는데, 수능에 적성이 잘 맞았는지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본고사 과목중 논술에 대해서는 학원이든 학교든 일단 썼다하면 모범답안이 되어 교실 뒤쪽에 걸렸을 정도였지만, 본고사 수학은 매우 힘들었고(특히 그 당시는 본고사 초입이라, 어려운 동경대 문제가 많았다) 수험 기간 내내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수능 이후, 본고사를 치루는 국립대, 특차전형의 사립대, 그리고 문이과 교차지원이 가능했던 의대를 놓고 고민했다. 수학은 물론이고 생물, 화학같은 이과 과목에 소질이 없던 나는 의대전공은 무리였고, 원래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국립대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 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차전형도 없었고, 인문계도 반드시 본고사에서 수학을 치러야 해서, 수학에 트라우마가 생긴 나로서는 사립대에 진학하게 되었다.

2. 대학교

새학기를 맞은 프레쉬맨의 봄은 설레었고, 화사한 햇살속의 푸른 캠퍼스는 나를 들뜨게 했다. 대학에서 제일 좋은 것은,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을 공짜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역사, 지리, 철학, 심리학, 의 약학, 경제학, 문학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치는 대로 읽었다. 나는 지적 호기심이 무척 강한 편이다. 예를 들어 배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몸이 나았다 싶으면, 진통제의 효력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서 뉴턴이나 과학동아를 뒤져 약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진통제에 대해 설명한 약리학 책이나 해리슨 같은 내과 의학 서적까지 파고드는 식이었다. 밥먹는 시간 빼놓고는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었고, 책을 찾다가 옆에 재미있는 책이 보이면 다시 거기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줄 몰랐다.

또한 컴퓨터도 무척 재밌어서, 컴퓨터 동아리에 들어서 친구들이랑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열심히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UNIX 스텐디도 했

었다. 우스개 소리로 사람들은 우리 무리들을 보려면 도서관이 아니라 학교 컴실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때의 경험이 바탕으로 되어, 향후 지적재산권을 전공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시1차도 지적권을 선택하고 연수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적권 수업만 들었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컴퓨터와 지적권은 큰 관련이 없었다)

난 유난히 학교축제나, 연고전같은 행사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시험공부 할때도 하지 않던 밤샘을, 축제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혹은 연고전때 미리 운동장에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 애들이랑 같이 밤을 새곤 했다. 특히나 5월이 되면, - 난 봄이 되면 몸과 마음이 들뜨고 설레인다 - 우리학교 축제뿐만 아니라 고대나 이대축제까지 챙기고 다녀오곤 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1학년때 학교 성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사시 면접에서 면접관님이 나보고, '성적표에 C, D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라고 물을 정도였다.....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면,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소위 자체휴강 하는 날이 허다했고, 귀찮으면 시험도 안보기까지 했다. 요즘 학점관리 열심히 하는 후배들이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공부를 안했다.

학점미달로 살고 있던 기숙사에서 나와야 했고, 입학시 받았던 장학금도 끊겼다. 2학년때는 그나마 성적이 나왔다. 그래도 수업에 관심없는 건 여전했고, 강의도 숙제도 등한시 한 채, 친구들과의 즐거운 음주가무와 좋아하는 책을 읽는 것에 열중했다. 지금도 성적표를 보면 한숨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때가 아니면 누릴 수 없었던 캠퍼스의 낭만과 즐거움은 내 인생의 소중한 추억(ASSET)으로 남을 것을 알기에, 비록 대변에 분개된 그만한 부채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3. 사법시험

스물 두살이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친구들은 일치감치 군대를 다녀오거나 신림동에 들어가면서 휴학한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벌써 스물 두살의 반이 지나도록 민총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사법시험을 2년 이내에 끝내기로 하고 일단 휴학하고 신림동으로 들어갔다. 전에 언급하다시피 1, 2학년때 고시공부는커녕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간 탓에 기초는 제로에 가까웠다.

고시원에 자리를 잡고 헌민형 교과서와 문제집, 독일어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나의 공부방법은 독특하다. 일단 나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때도 그랬지만, 비스듬이 기대 앉거나 편하게 누워서 소설책 읽듯이 읽곤 했다. 한 챕터를 천천히 읽고, 잠시 쉬면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며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 할 것인지를 이리저리 생각해봤고, 내키는 대로 다른 자료를 찾아보거나 참고서적을 보곤 했다. 보통 시험공부를 하다보면, INPUT 즉 머릿속에 기억을 저장하는 데만 열중하기 쉬운데, 우리가 시험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저장된 자료를 시험장에서 OUTPUT 시키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나는 거의 퉁퉁거리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남들이 보면 그냥 놀거나 쉬는 줄 알았다. 공부하다 눈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강의 테이프(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가 다였다)를 틀어넣고 들었다. 다만 모르는게 있거나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밑줄로 표시를 해두고 넘어갔다. 이는 시험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한번 모르는 것은 영원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막판 정리할 때 중요하거나 모르는 부분 위주로 봐야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공부에 대한 장벽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책상까지의 거리이다. 그런데 잠에서 깨면 바로 옆에 책을 펼쳐놓고 부담 없이 읽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 의자에 앉아있을의 피곤함이나 허리에 대한 무리함에 비해, 훨씬 더 편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에 효율성이 더 높은 것 같다. 다만 이는 아무나 쓸 수 없는 방법이고, 자칫하다간 공부하다 잠만 자거나 루즈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얼마전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행했다던데, 사람을 아침형/저녁형 으로 나눈다면 나는 전형적인 저녁형에 속한다. 하루중에서 아침 일어날때가 제일 힘들고, 체온도 낮아지고, 컨디션도 좋지 않다. 아침엔 정신을 못차리다가 점심이 지나서야 괜찮아지고 오후에 왕성해지다가, 저녁 먹고서는 기운이 넘치고 펄펄 날정도로 생생해진다. 그래서 학교 다닐때는 아침강의는 신청하지 않았고, 필수라 어쩔수 없던 과목들은 대부분 결석하게 됐다. 그래서 난 공부할때는 항상 밤새 공부하고, 아침에 잤다가 점심 쯤 일어나서 다시 공부하는 식이었다. 이런 게 생활리듬에는 안좋다고는 하지만,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나 체질이 다니므로 자기에게 맞는 공부시간과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맞추면 상관없다고 본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공부를 효과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타입이라 하루에 공부시간은 평균 일곱, 여덟시간 정도였고, 잠도 8시간씩 충분히 잤다. 쉬는 때는 라디오를 듣거나 책을 빌려 읽었다. 비교적 무난하게 공부한 편이지만, 비오는 토요일에는 나도 모르게 창밖에 내리는 빗물을 보며 웬지 모를 외로움에 쓸쓸해하기도 했다. 99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였나, 밀레니엄을 앞둔 그 이브날, 나는 신림동 고시원 방에 혼자 있었다. 그 날만은 일찍 불을 끄고 라디오를 틀었을 때, 어느 프로에서 이승환의 '크리스마스에는' 이라는 노래가 흘러 나왔고, 추위에 손을 호호불면서 그 노래를 귀를 기울일 때, 어둠속에 난로가 트리 대신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스물세살이던 1999년 1차를 합격하고, 그 다음해 스물 네 살인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생각했던 대로 2년만에 사법시험을 여유 있는 점수로 패스할 수 있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새 밀레니엄을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

4. 사법연수원, 법무관, 회사시절

연수원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다. 인물도 다들 훤칠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다. 다만 형, 누나들 뿐인 틈에서, 내성적인 성격탓에 친하게 지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연수원때는 또 책병이 도져 - 어디든지 일단 들어가서 1, 2년은 그런 것 같다 - 매일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는 것이 일과였고, 특히 글쓰기에 폭 빠져서 매일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읽고 수필을 쓰거나, 인터넷에 글을 연재하곤 했다. 컴퓨터에 앉아서 글을 쓰는 시간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고, 연수원에서 발간되는 미네르바라는 소식지에도 종종 줄고를 투고하곤 했다. 밤새 글을 쓰다보면 어느새 새벽이 와 있었고, 4학기 검찰 실무 시험시간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점심시간 지나서야 연수원에서 전화를 받고 뛰어가는 황당한 상황도 겪으면서 수료하게 되었다.

연수원 수료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처음으로 송무를 경험해보았다. 특히나 내가 있었던 곳은 전국에서 사건 많기로 1,2위를 다투던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쌓을수 있었다.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보람이었고, 그래서 종종 이길 때 성공보수 대신 옥수수나 손수 캔 더덕구이를 받았던 것은 좋았지만 하루에 재판이 네 댓개씩 있는 날에는, 여기저기 법정에 뛰어다니기가 쉽지 않았고, 그때마다 상대편 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지치는 일이었다.

학부 때부터 지적재산권을 꾸준히 전공해오면서 향후 이쪽으로 전문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당시 지인의 소개로 변호사분이 오너로 있던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회사에 변호사는 내가 처음이어서 처음 내부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나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회사에서는, 추후 회사를 이끌어 갈 젊은 핵심인재들 (30대 팀장급들로 당시 F4로 불렸음) 4명과 나를 묶어 한 팀으로 만들었는데,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즐겁게 어울렸던 기억이 난다. 역시 회사에서 인정받는 분들은 뭔가 달라고 달랐다. 성실함과 스마트함은 기본이었고, 회사 전체와 사업 전반에 대한 뚜렷한 통찰력과 전체 청사진까지 그리고 있었다. (지금도 그 F4는 최연소 부장으로서 회사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특히 특허, 상표권 분쟁이 많았었는데 외국계 회사와의 소송이 많았다. 그런데 변리사나 공대, 의약대 출신 변호사가 아니면 이쪽에서 전문화하기란 쉽지 않았고, 생각보다 변호사에게 주어진 영역이 크지 않았다. 또한 호텔에서 외자사 대리인들과 협상을 하는데, 나를 영어 좀 한다고 생각한 나로서도 도저히 그 회의에 따라갈 수가 없었다.

넉넉하고 안정된 처우, 좋은 동료들과 편안한 근무환경에 자꾸 안주하고 싶어졌지만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고, 더 오래 가기 전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문분야의 메인스트림인 금융분야에 일하고 싶었다. 근무하면서 지주회사 분할을 회계법인과 같이 일을 해봤는데, 그 때 회계나 세무쪽 지식이 있으면 참 유용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유상증자나 기업지배구조변경, 회사분할등의 업무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과 같이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금융분야 자격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험인 CPA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CPA 합격 후에는, 여유있는 시간에 TEPS공부를 통해 대학원을 진학함과 동시에 AICPA나 CFA도 공부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CPA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합격가능성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혹시 다른 선량한 수험생 한명이 떨어지지 않는까 하는 우려였다. 사실 고시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정말 CPA 하나만을 위하여 인생과 청춘을 다 바치는 수험생들을 생각하고 한참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CPA가 상대평

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점, 그리고 CPA에 합격하여 기업재무와 법률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에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다른 수험생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응시를 결심하게 되었다.

사실 CPA는 신림동에서 몇 번 스터디를 하는 그룹들을 '구경'한게 전부고 차변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학여행 전날의 설레임처럼, 또 다시 삶을 더 열정가득하게 살아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은근히 설레기 까지 했다. 다만 나를 전적으로 믿고 아껴주신 회사 분들, 특히 아들처럼 대해주신 임원분들과 친구 같은 팀원들이랑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울 뿐이었다.

5. 출시의 변

회사를 그만두고 사표를 냈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모든 지인들이 의아한 눈빛이었고, 안정되고 넉넉한 직장을 그만두고 불안하고 힘든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나중에 기업법무나 재무이슈를 다룰 때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진로선택의 기회를 갖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남들의 비교는 나에게 무의미했기에 젊은 시절의 소중한 투자가 나중에 내게 풍성한 수확으로 다가오기만을 바랐다.

6개월 정도는 회사를 다니지 않고, 종로에서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었고, - 특히 김기동 선생님의 재무회계 강의를 열심히 들었었다 - 2010년 1차 CPA 시험을 치르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2010년 CPA 1차는 알려진대로 역대 최고 난이도와 최저 합격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 매년 몇 천명씩 뽑은 1차 합격자를 1235명만 뽑아, 2차합격인원(1000명)에 거의 근접했음 - 그래서 기대도 안하고 있다가 운 좋게 커트라인을 넘어서 합격하게 되었다.

6. 2010년 1차시험(합격), 2011년 1차시험(합격)

회계원리는 흥미로웠다. 특히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과정은 아무리 보아도 신기하고 놀라웠다.

다만 비전공자로서 초반에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계정과목중에 '소모품'과 '소모품비'가 있어서, 이 두 개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고심했었다. 소모품은 B/S

과목으로 '자산'이고, 소모품비는 I/S항목으로 '비용'에 속한다는 것은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 (혹시나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초보자가 있을까봐 적어둔다. 이런 간단한 것도 초반엔 많은 고생이 되니까..)

각 1차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본다.

1차 재무회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50문제 가운데 25문제만 정확히 풀면 평균은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풀 문제'와 '스킵할 문제'를 구분한 다음, 풀 문제에만 시간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재무회계 공부의 출발점이다. (예를 들어 올해 재무회계 1차 문제중 연수합계 감가상각 문제를 '정석대로 방정식 세워서' 풀어서 정답을 찾아냈다면 아마 재무회계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본다. 경제학에서 게임이론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바람둥이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나요?' 그러자 바람둥이가 말했다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궁금해하며 물어보았다. '지혜로움과 현명함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넘어갈 여자와 넘어가지 않을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넘어갈 여자에게만 대쉬하는 것이 현명함입니다'

우리도 시험장에서는 풀 문제와 안 풀 문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움과, 풀 문제에 시간을 들이는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공식, 일명 '와꾸'를 만드는 것이다. 촉박한 시간과 긴장감 때문에 시험시간에는 뭘 새롭게 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 2011년도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1차 재무회계 무더기 과락사태가 기억날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생각보다는, 어떤 문제를 보면 어떤 공식을 자동으로 떠올리고, 그 공식에 기계적으로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중 난이도 높은 '종업원 급여'를 보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세웠다.

B/S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미인식보험수리적손실 :

미인식과거근무원가 :

I/S

퇴직급여 :

예를 들어 급여채무 100이 발생하면,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에 100을, 퇴직급여에 100을 기재한다. 사외적립자산에 기대수익이 50발생하면 역시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사외적립자산 50, 퇴직급여에 (50)을 기재한다.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합계만 계산되면 자동적으로 확정급여부채와 퇴직급여가 나온다. 이런 와꾸는, 자기만의 논리가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시간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합격생들의 비법을 전수받는 것도 무척 도움이 될 것 같다.

중급회계 중 현금흐름표랑 오류수정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현금흐름표는, 현금을 제외한 다른 계정들의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과목이었다. 쉽게 나오면 풀겠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꼬아서 나오면 손도 못덜 느낌이였다. 나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해매는 편이다. 오류수정도 장부가 마감되었을 때와 아닐 때가 각각 논리가 틀려서 이해가 쉽지 않았다. 사실 처음 김기동 선생님에게 강의를 들을 때, 착실히 강의를 들은 부분은 나중에라도 이해가 됐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강의를 듣지 못한 부분은 나중에 많은 고생을 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해가 되든 안되든 전체를 빠지지 않고 착실히 들어두는 편이 나중에 위해서라도 낫다.

원가회계 1차는 대체로 재무회계보다는 쉽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뒤에 있는 원가부터 푸는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2010년까지는 그런 전략이 그런대로 통했지만 올해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떨어졌을 것이다. 2011년 1차 원가가 12문제인가가 나왔는데, 난 하나도 맞추지 못했다. 물론 원가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다 찍긴 했지만, 어떻게 찍은 것마다 답이 비켜가는지.....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가와 재무는 어떤 것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니, 어려운 문제와 풀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고급1차는 향후 출제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재무회계 점수받이었다. 작년과 올해 모두 고급은 상당히 쉬운 편이었고, 1차에서도 고급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대되리라 본다. 다만 고급은 '고급'이라는 이름에 비해서는 쉽다는 것이지, 결코 내용 자체가 쉽다는 말은 아니다. 사실 고급회계는 강의를 듣지 않고서

는 절대 배울 수 없는 내용이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례를 들자면, 개별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의 구별기준은 저녁 시간 내내 봐도 이해가 안 되서 괴로워했고, 연결분개 끊을 때 매출원가/재고자산 2년차 이후 분개가 이해가 안 되서(억지로 외웠지만 지금도 이해는 잘 안됨) CPA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많았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IFRS 회계기준 번역을 너무 무성의하고, 이해하기 힘들게 한 탓이지만, 얇은 분량에 너무 성급하게 달려든 탓도 있었다.

경제학은 2010년은 역대 최고의 난이도이자 최저합격률의 주범이었고, 과거 점수받이라던 경제학에서 여러 명이 우수수 걸려 넘어졌다. 정병열 연습서와 김판기 강의를 수도 없이 들었고, 멘큐책과 3인 공저 까지 봤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고, 패닉에 빠질 뻔 했다. 난 문제를 풀다가 안될 것 같으면 비교적 쉽게 스킵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그 해 경제학은 1번부터 10번까지 줄줄이 스킵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2011년 올해 경제학도 미시는 정말 어려웠다) 다행히 경제학 점수는 합격자 평균에 비해서도 무척 좋은 편이었지만.....

개인적으로 경제학 미시는 그냥 거시를 이해할 정도만 보고 거시량 국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격확률은 높은 것 같다. 특히 2011년에는 전철타고 시험장으로 가면서, 국제경제학부분만 봤었는데 그 부분에서만 3, 4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1차 세법은 할 말이 없다. 세무회계와는 달리 정말 객관식 세법은 나랑 맞지 않았고 점수도 저조했기 때문이다. 1년 더 공부해서 오히려 점수가 하락한 기이한(?) 과목이고, 객관식 세법은 시간은 촉박하고 숫자가 1만 틀려도 영똥한 답안이 나오는 탓에 부끄러운 점수만 받고 말았다. 하지만 궁금한 건, 작년 세법1차 손익의 귀속시기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지문이 왜 틀린건지.....내가 알고 있는 결산확정일과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같은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경영학은 두 번에 걸친 1차에서 합격의 일등공신이었다. 회사생활을 해서인지 이해도 더 쉽게 되었고, 특히나 세법을 능가하는 토나오는 암기량(특히 리더쉽과 조직이론의 학자들)이 있었지만, 세법과 달리 꼬거나 계산이 필요없다는 점 때문에 점수가 높았다. 경영학이야말로 시험 전날이나, 당일 공부 가장 빛을 발하는 과목인 것 같다. 특히 공부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때는 기업가와 직장인 마인

드(?)로 최선을 다해서 풀어야 한다.

재무관리는 2010년 1차와 2011년 1차의 난이도가 극과 극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2010년은 경제학과 함께 폭탄과목의 대표였고, 2011년은 문제를 읽고 1초만에 답이 나오는 구구단 수준의 문제가 많아서 합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1차를 통과해도 2차를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1차 공부할 때도 재무관리 공부의 기초와 기본을 착실히 해둬야 하며, 특히 기업재무에 비해 과생쪽은 뒤에 있어서 공부에 소홀하기 쉬운데 오히려 문제는 과생쪽이 더 쉬운 것 같다.

내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상법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가장 많은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상법과목에서 유달리 뛰어난 점수는 얻지 못했다. (두번다 70점대) 오히려 경영대 출신 일반 수험생들이 80점, 90점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합격생 평균보다도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다.

사시2차에서 상법을 70점대로 최고점을 받았지만, cpa에서 저조한 이유는 양쪽이 공부방법이 달랐던 것이다. 사시는 2차과목의 특성상 주요 주제 위주로 깊이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면, CPA는 조문의 철저한 암기를 바탕으로 세세한 지식위주의 넓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문제집 위주의 공부는 금물이고, 철저히 조문위주, 교과서, 판례 위주의 공부로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전범위를 포괄하는 전략이 현명해 보인다.

7. 회사생활

회사(은행)에서는 준법지원부에서 의견서작성과 법률자문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정월보다 월등히 부족한 변호사 숫자로 사내변호사로서는 상당히 업무과중이 있는 편이었다. 하루에 많을 때는 3~4개씩 의견서를 써야 했고, 수시로 걸려오는 상담전화 - 우리 회사의 지점은 국내에서 가장 많았고, 직원은 15000명 이상이였다 - 직원들 개인의 법률상담, 거기다 각종 컬럼과 회의까지....다만 저번회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수시로 걸려오는 독촉전화 - 빨리 해달라는 - 였다. 왜 그렇게 다들 급하신건지, 급한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충분한 검토기간과 시간을 주면 자료와 판례도 여유있게 찾아볼텐데, 일단 일부터 만들고 나서 오늘 내일 하는 식으로 질의서를 달라고 하니, 답 찾기가 쉽지 않았다.

2010년 1차 응시후, 불합격을 확신(?)하고 미국에 놀러갔다가 합격소식을 듣고 부랴

부랴 돌아왔을때는 2차시험이 두달도 채 남지 않았고, 겨우 1회독씩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감사 빼고는 불합격(50점대)였다.

사실 회사다니면서 CPA 2차 공부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지금 20대 초반의 경영학 전공의 썩썩하고 체력좋은 대학생들이 하루 종일 공부에만 매달려도 최소 3, 4년씩 걸리는 시험에서, 회계라고는 시험전에 대변, 차변도 모르는 사람이, 달랑 6개월 공부하고, 매일 야근하며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는 공부방법에 있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집중력있게 남들의 3배, 4배의 효율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자위했다. 평일에 회사에서 돌아오면 빨라야 오후 9시 정도. 회사에서는 점심때 간단히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로 때우며 1시간동안 동영상 강의를 들었고, 퇴근해서 동영상 본 것을 정리하고 예,복습을 하였다. 주말에는 과천에 사는 친구와 함께 과천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와 씨름했다.

2010년도에 한과목 합격이라, 곰곰이 생각한 끝에 2011년도에 1차에 재도전하기로 하고, 또다시 짐을 하나 더 얹었다. 회사생활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꾸준히 쌓여가는 실력 속에 은근히 합격까지도 바라게 되었다.

8.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씨앗을 심을 때가 있으면 열매로 거둘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 시킬 때가 있고, 혈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전도서에 나오는 문구다. 길지 않은 내 삶에서도 몇 번 울 때가 있었는데, 운 나쁘게 한참 회사 다니면서 2차를 준비하던 2011년 초반이 바로 그러했다.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었다. 회사에서는 겨우겨우 일을 처리했지만, 퇴근하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밥 한술 뜨지 못 한 채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그냥 어두컴컴한 방에서 쓰러져 지냈다. 마음에는 우울함만이 가득했고, 밥을 먹어도 맛을 알지 못했고 잠을 자도 단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부느커녕

책을 아예 펼쳐보지도 않았고, 대변 차변 소리만 들어도 짜증만 났다.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기도 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자기연민에 휩싸여서 지냈다.

2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1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야 했다. 그해 2월에 실시된 2011년 1차시험은, 그래도 그동안 공부한게 있어서 합격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넉달동안 공부효율은 제로에 가까웠다.

내겐 조카가 생겼다. 예쁜 여자아이.

마음이 외롭고 아플때는, 조카사진을 보거나 동영상을 보고 마음을 달랬다.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했지만, 잠시 집에서 공부할 때, 내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재우고 해서인지 유난히 정이 담백 들었다. 안고 있으면 너무 따듯했고 그 작은 입술로 내 볼에 뽀뽀를 해줄때는 정말 행복했다. 주말마다 먼 거리였지만, 집에 내려가서 따듯한 집 밥을 먹으면서, 조카랑 자전거도 태워주며 같이 놀아주면서 마음을 달래니, 서서히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고시공부를 하다보면 누구나 한 두번쯤 슬럼프가 온다. 이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냐에 따라서 합격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한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나는 양치질을 참 좋아한다. 이를 닦고 난후의 상쾌함 때문에 남들보다 양치를 오래, 자주 하는 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양치를 할 것이고 어딜 가든지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칫솔일 것이다.

공부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느 순간에 굳은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의지와 감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만다. 따라서 고시공부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양치질을 하듯 무의식적으로 습관처럼 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양치를 한다는 대단한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다. 그냥 하루에 세 번씩 하는 거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한 괴로움 속에서도, 김종길 재무관리 연습문제 다섯 개, 세무회계 연습문제 일곱 개, 원가회계 세문제....는 꼬박꼬박 풀어갔다. 양치를 못하면 잠이 안오듯이, 문

제를 풀지 않으면 뭔가 걸려서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에 정해진 문제를 풀었다. 문제를 풀다보면 그냥 한 두시간 멍하니 같은 곳을 반복해서 읽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면 잠도 늦게 자는 날이 허다했다.

내게 공부방법을 묻는 사람이 있다면, 처음으로 해주는 말이 있다면 위의 그 '양치 이론'과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관계를 단순화 시키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연애원칙(GALP : Generally Accepted Love Principle)에 의하면,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여자친구는 합격후에 사귀라고 권하고 싶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불면 흔들린다'는 말처럼, 남자의 속성상 일단 여자친구가 생기면 보고싶고, 만나고 싶은 충동 때문에 공부에 집중이 잘 안될뿐 아니라, 싸우기라도 하면 그 날 공부는 다 한 것이다. 연애도 일종의 사람과의 거래인데, 고시공부 할때는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허약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라 힘은 힘대로 들고, 공부도, 연애도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시험기간에는 정말 외롭고, 특히 인간은 그럴 때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이성을 제외하고, 자신의 빈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 친구, 은사, 가족 모두 좋다. - 이 단 한명이라도 옆에 있는 것이 좋다.

9. 2차시험 (2010년 '감사'합격, 2011년 최종 합격)

회계감사는 2차과목중, 사실 내가 제일 자신있는 과목이다. 감사는 비교적 논술형에 가까운 시험으로 사시2차와도 성격이 유사하고, 내가 그러한 논술형 시험에 무척이나 강했기 때문이다. 유예와 동차와의 가장 큰 차이가 감사과목에서 난다고 하던데, 오히려 난 동차에, 그것도 감사폭탄이라던 해에 합격했으니 자신감을 가질 만 했다. 다른 수험생과 마찬가지로 권오상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유일하게 긴장을 풀고 편하게 들을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다. '권실자 감감전업' 등의 약어는 탁월한 전략이었고, 감사는 약어로서 외우는게 확실히 편하다. 그리고 감사 책 1회독도 제대로 못한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무작정 외우는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례를 실제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했던 게 컸던 것 같다.

재무회계는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연결제무제표는 IFRS가 도입되면서 기본적으로 중요성이 엄청나게 증대되었고, 그 밖의 추세로 보아 파생회계

도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차 문제는 1차 공부 못지 않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들 안다고 하는 것들 - 차입원가의 자본화 - 도 막상 풀려고 하면, 제대로 풀어지지 않거나 한두개씩 모르는 점이 발견될 때가 많다. 어설피게 아는 것보담 아예 모르는 것이 낫다. 올해 2차 1번 차입원가 자본화문제도, 토지자본화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지나쳤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다른 걸 풀 수 있었다. 과본검사하다, 맨 마지막에 역취득 글자가 들어오자, 정신이 아찔했다. 2차 시험에서 제일 당황한 사건이었다. 분명 미래 학원 연습서에 있는 문제인데, 설마 이렇게 나오랴 싶어 스킵했던 부분이 었다. 2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문제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강이라도 좀 알아놓는 것이 나중에 불의타에 당하지 않을 방법이다.

세무회계는 이번이 가장 쉬운 편이었다던데, 정작 점수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차피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쉽다고 해서 들뜰 필요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 치는 것이 진부한 얘기지만 최고의 방법이다. 세무회계는 함정, 일명 '낙시'에 걸려들지 않은 것이 무척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번 시험에서 상속재산 가액을 구하는 문제의 경우, 나온 자료를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너무 쉽다는 생각에 상속공제 자료가 아주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무의식중에 공제를 해버릴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쓸데없는 자료는 과감히 무시 할 수 있는 담대함과 공부량이 되어 있어야 한다

원가회계는 알다시피, CPA 전체를 통틀어 끝판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걱정을 참 많이 했다. 사실 위와 같은 방황 때문에 제일 방해받은게 원가회계 공부였고, 미래학원 교재중에 심화문제는 손도 못대고, 기본문제도 반도 못푼 상황에서 예제만 습득하고 기초적인 문제만 틀리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시험장에 나갔다. 첫문제가 무지 까다로웠다. 아마 첫문제에서 나처럼 시간 소모했던 사람이 무척 많았으리라.

여기서도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1점에 1분씩 배분하여 절대 그에 해당하는 시간을 벗어나서는 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담이지만 -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나도 평범하기 그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 원가회계 1장에 나오는 보조원가의 배분방법중 상호배분법은 도무지 이해가 안돼서 초반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남들은 그리 쉽다던데, 특히 배분되는 보조원가가 3개일때는 손도 못대는 느낌이었다.(역시 난 수학적 마인

드가 부족한가)

재무관리는 할말은 많지만, 다른 합격자분에게 양보하고 싶다. 하지만 고등학교때 수학 때문에 문과를 갔고, 법대를 갔던 얘기를 생각하면 내가 재무관리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재무관리를 하다보면 고등학교 수학은 아주 쉬워 보였다. 재무관리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쉬운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특히 재무관리는 중간에 하나 틀리면, 그 뒤부터 줄줄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기업재무는 처음 보면 다 아랍어 같고, 소련말 같은데 하다보면 차츰 익숙해 지는 것 같다. 그 수많은 공식들을 처음 보면 질릴 수도 있지만, 차츰 하다보면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과생은 사실상 그 범위가 무한한데, 알다시피 시간이 무척 없는 관계로 출제가능성이 희박한 부분(티본드, 스왑등)은 아예 생략했다.(이해도 안되고) 재무관리 마지막에 실물옵션과 블랙솔즈 모형을 결합한 - 내가 아는 이번 2차에서 최고난이도의 문제- 가 나왔는데, 어떻게든 부분점수라도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벨 울리는 시간까지 식 대입하고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복제로 콜 옵션 구하는 문제도, 도무지 풀어지지 않아 위험중립으로 풀었는데, 전부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생각이 논술형식의 2차시험에서는 제일 위험하고, '어떻게든 봐주세요' 하고 읊소하며 교수님에게 1점이라도 더 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아무리 모르는 것이 있어도,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채워놓고 써넣었고, 시험 끝난 후에는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쏟아부으려 했다.

10. 시험 당일 및 이후

2차 시험 역시 홍대에서 치뤘다. 시험 기간 내내 태풍이 불어서, 비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시험을 치뤘다. 시험 일주일 전에 휴가를 냈지만, 아직 마음의 상처가 다 낫지 않아 휴가 내는 날 밤새 술을 마시는 만용을 부리기도 했다. 정말 수험생에게는 마음의 안정, 수련이 중요하다. 종교든, 사람이든, 명상이든 항상 마음을 고요한 바다같이 유지하기를 당부해 본다. 시험 내내 비바람이 불었던 날씨가, 내가 2차 시험을 끝내고 건물을 나서자 거짓말처럼 개고 햇살이 비추었다. 내 앞에 이제 햇살만 있으려나 하는 생각에 괜히 기분이 좋았다.

시험이후 마음껏 책도 읽고, 야구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도 하며 지냈다. 때마침 2차 시험 전에는 7,8위를 전전하던 롯데가, 시험 끝나자 서서히 반등을 시작하고 있어서 야구 보는 재미가 더 했다. 하지만 막상 당일에는 잘 친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실수한 것만 생각났다. 특히 재무관리의 그 듀레이션 문제라던지, 재무회계의 역취득 문제, 원가의 그 쉬운 제조간접비 배부문제는 엄청난 실수여서 갈수록 애가 탔다.

하지만 어차피 2011년에도 1차를 합격해 놔서, 최악의 경우라도 내년에 떨어진 과목만 치면 된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귀요미 조카는 이제 미운 네 살이 되어서, 어른들 말도 잘 안듣고, 초콜렛을 주고 자전거도 맘껏 끌어줘서 자기 기분이 좋아야 웃어줬지만, 그래도 마냥 좋았다.

발표날은 늘 그렇듯이 정말 떨렸다. 하지만 내 이름을 발견하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그리고 내 주위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흘렀다.

11. 수험생활에 대한 한가지 제언

경제학을 처음 배우면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것을 배운다. 말 그대로 배고플 때 처음 먹는 빵, 목마를 때 처음 마시는 물이 제일 맛있고, 하나씩 더 먹고 마실수록 그 효용은 체감한다는 것이다.

수험생활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놀이이고 즐거움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수험생활을 할때는 모든 것이 제한된다. 그래서 시험공부 할때는 9시 뉴스도 재밌다는 우스개 소리처럼, 고시공부할 때 듣는 잠깐의 라디오, 티비 프로도 정말 재밌다. 또 공부하다가 먹는 점심, 저녁의 달콤함과 졸릴 때 먹는 커피 한잔의 여유, 수험기간중 잠시의 휴식이 주는 즐거움, 또 잠깐 친구나 가족을 만날 때의 반가움도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짧기에 더더욱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뭐든지 흔하면 가치가 떨어지기에, 고난이 있는 사랑이 더더욱 불탄다는 말처럼, 수험기간은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을 제한하고 귀하게 만듦으로서, 오히려 그 부족함에서 오는 짧은 만족, 충족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 마치 인간이 시간을 두고 세끼를 먹는 이유가, 일부러 공복감을 만들어서 나중에 먹을 때 더 큰 쾌감을 위해서라는 프로이

드의 심리학 이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험생활 자체에 대한 즐거움도 발견해 보자. 시험 보기 전 파본검사를 하면서 모르는 문제가 나올까봐 느끼던 그 설레임, '5분 남았습니다' 라는 감독관의 말에 급하게 시험지를 채워놓을때의 스틸(88열차, 바이킹 저리가라다),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객관식 보기에 숫자가 있을 경우의 쾌감, 세무회계에서 익금산입에 오른손 손금산입에 왼손에 아령을 들면서 공부하면서 검사검사 운동까지 하는 실용성, 경제신문에서 ROI와 ROE를 구분해서 읽었을 때의 으쓱함, 그런 것들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절제력'이다. 자기자신을 절제하고 달래는 마음. 자신을 더 사랑하고 인정하기에, 어떤 모습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절제가 의무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험난한 수험생활도 그리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12. 에필로그

가끔 종로에 갈 때마다, 회계책을 가슴에 품고 걸어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웬지 내 후배 같고, 동생 같은 마음에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저의 생각을 전하다 보니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저의 글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단지 한 개인의 평범하게 걸어온 길이지만 단 한 사람의 수험생이라도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일과 수험공부의 병행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주위 분들의 정성과 관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감사를 표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제가 한 분이라도 빠뜨리는 불찰이 있을까 봐 이 글과 마음으로나마 진심어린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회사를 그만두고 공부할 때, 옆에서 밤낮으로 챙겨주신 어머님과 어여쁜 조카가연이, 다민이에게 꼭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